

경영자는 직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필요

■ 현대사료(주) 문철명 사장

“경영자는 직원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한번 맡긴 일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회사를 내집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애사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사료(주) 문철명 사장의 평소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 철학이다.

문철명 사장(69세)은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수도권 생물판매(주)(현 녹십자)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삼우화학공업(주) 영업담당 상무이사를 거쳐 지난 1972년 현대사료공업(주) 창립임원(상무이사)을 역임한 후 1973년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문사장은 은성산업(주)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1983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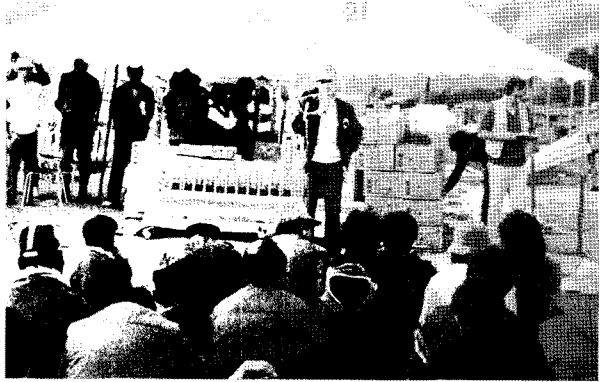


월 5일에 현대사료(주)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지금의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문철명 사장은 지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사료협회 부회장과 원료구매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료업계의 굼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편 원료구매위원장을 맡으면서는 저렴하고 질 좋은 사료원료를 원활하게 구매·공급함으로써 회원사는 고품질의 배합사료 생산에만



▲ 부회장 재임때 87년 5월 21사단국군장병위문(15대사단장 당시 박찬금회장)



▲ 89년 안성노곡지에서 34회 사조회 개최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축산·사료업계의 낚시 친목단체인 ‘飼釣會’ 회장을 맡으면서 사료업계는 물론 관련업계의 친목도모와 가교역할을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직 CEO로서는 원로에 속하는 문사장은 달변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할말은 누구앞에서든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사항은 논리적으로 철저히 밀어붙여 관철시키는 독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 바쁜 일상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낚시터를 찾아 명상의 시간을 자주 갖는 낚시광으로도 소문이 나 있다. 다음은 문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Q. 유년시절 및 학창시절의 추억은?

A 70평생 가까이 살다보니 6.25를 비롯한 격동의 세월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때 6.25를 겪었고, 피난시절에 중학교를 입학했고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음해에 5.16이 일어났으니 일본 통치시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

국의 근대사를 몸소 경험한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년과 학창시절을 회상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금년이 고교졸업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얼마전에 동문들 300여명과 함께 국내 여행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대학시절은 좋은 환경의 캠퍼스에서 인생을 논하며 농대 연습림이나 목장에서 축산전공의 견문을 넓혔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에서 찾아온 친구들과 서호저수지에서 자연과 더불어 낚시도 즐기며, 관심분야에 대해 이야기 하며 밤이 깊어 가는 줄 몰랐습니다.

Q. 사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A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외강내유’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일례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10여명중 제가 제일 마지막 발표자였는데 저와 대통령의 질의응답은 5분만에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자료에도 없



▲ 부인 성정재 여사와 뉘시터에서의 즐거운 시간

는 우리업계의 당면숙제였던 인천항 싸이로 보관요율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 사료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여 석달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약자편에 서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후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신조는 현실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사자성어나 한자문구는 “滿座高朋(고귀한 벗들이 자리에 가득하다)”과 “百忍堂中有泰和(백번 참는 가운데 가정에 큰 평화가 온다)”입니다.

Q. 전환기의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A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60~70년대 까지만 해도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 없으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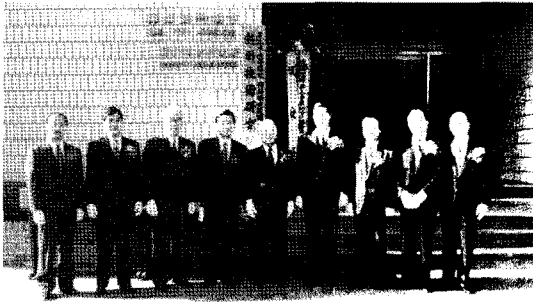
지난 1993년 12월 117개국에 참여한 UR협상이 타결된 후 WTO시대가 열렸고 또 국가간 FTA협상을 하는 시기에 우리 농업의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입니다. 국토의 면적에 비해 인구는 많고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밀려오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지켜낼 길이 막막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장·단기계획을 잘 세워서 5000만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의 자급도를 결정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50%는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따라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 당국자의 정책과 홍보활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애국심에 의해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규모가 결정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곧 다가올 한·미 FTA, 한·EU FTA, 한·중국 FTA 등 모든 협상이 우리 축산·사료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사장님께서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은?

A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정부정책과 식품



▲ 사료기술연구소 헌판식 때

부산물을 폐기물로 분류하여 모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환경부 규정, 연말이면 다가오는 할당관세품목과 관세율 결정, 또한 지속적인 배합사료의 영세율적용 등 이 모든 것이 축산·사료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회사가 설립된 초창기에는 월 생산량이 2~3천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전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월 평균 23,00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시대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영입하여 회사경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사료를 아끼고 찾아주는 고객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장님과 현대사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글사진 권영길 차장〉



▲ 창립 제27주년 기념식